

##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박 은 옥\*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결혼만족도는 그 사회의 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그 사회의 안정성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현대사회는 성역할에 있어 더욱 유동적이고 가변적이 되었으며, 남편 혼자의 수입만으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사회는 자녀 양육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 시작하였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욱 더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역할공유와 평등한 부부관계의 요구와 상충되고, 이에 따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발생되며, 이에 따라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혹은 역할갈등,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고은숙 & 김명자, 1993; 구혜령, 1991; 김경신 & 김오남, 1997; 김순주, 1994; 김영희, 1992; 최규련, 1993), 상대적으로 비취업주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취업 주부도 취업주부 못지 않게 직업활동에 대한 선

호를 보였고(김은주, 1979), 취업주부의 가정은 부부공동의 결정이 높고, 부부간의 대화일치도가 높으며 주부 중심적인 대화내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더 민주적 경향으로 변화시키는 반면(배민자, 1981), 비취업주부의 경우 변화해가는 성역할의식과 달리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삶의 질, 건강수준에 중요한 요인이다.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 혹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고정자, 1998; 최규련, 1993; Vandewater et al., 1997; Wickrama et al., 1997; Windle & Dumenci, 1997). 부부가 중심인 서구사회에서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시되고, 여성의 역할도 아내의 위치보다는 어머니의 지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등(정현숙, 1997), 문화적 차이가 있어 부부중심의 결혼만족도 보다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여성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가정생활전반에 초점을 둔 결혼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비교분석하며, 셋째,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1998년도 사회통계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므로, 조사시점이 국민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IMF 자금지원 이후의 시기이므로 분석결과의 활용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 문헌고찰

### 1. 가정생활만족도 관련이론

역할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정의되고 가족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역할체계로서 간주된다(Burr et al., 1979; 박태영, 1998에서 재인용). 배우자의 역할수행과 자신의 역할수행 두가지 모두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자신의 역할수행보다 배우자의 역할수행이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Burr et al., 1979; 박태영, 1998에서 재인용). 한국문화는 가족체제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내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다. 가족의 맥락에서 역할관계의 위계적인 체계와 조상과 나이많은 가족 및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한국문화에서 조상과 나이많은 남자 및 부모는 위계질서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행동은 일종의 교환이며,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보상이 비용을 초과하는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시키도록 동기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다소 보상적인 행동의 교환으로 간주된다. 부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는 시도를 한다(Yogev & Brett, 1985)

'가정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은 그다지 많이 쓰여진 용어는 아니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

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였고(김득성, 1986; 이인수 & 유명주, 1986; Orden & Bradburn, 1968; Spanier, 1976),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결혼생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인척관계뿐 아니라 경제나 주택 등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함시킨 연구도 있었다(김득성, 1992; 서동인, 1985).

### 2.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생활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성역할태도나 의사소통방식 등과 같은 태도와 의식과 관련된 요인, 남편의 지지나 가사조력자 유무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김경숙, 198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김명자, 1977; 이동원, 1976),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고(박은옥, 2001), 취업여부에 따라 스트레스나 결혼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권아연, 1993). 비취업주부의 결혼적응에는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주부의 결혼적응에는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지속기간이 길수록 결혼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Burr, Ahern, & Knowles(1977; 박미령, 1987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취업여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어, 낮은 계층에서 주부의 취업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자녀의 연령과 미취학 자녀의 존재 여부도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Thomas, Albrecht, & White, 1984; 정혜정, 1986에서 재인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고 한다(Skinner, 1980; 정혜정, 1986에서 재인용).

취업주부인 경우 취업 특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 전문직인 경우에 비전문직에 취업해 있는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고(김경숙, 1988; 이동원, 1976), 직위가 높을수록(최규련, 1993),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

1988; 김경신과 김오남, 1996; 서동인, 1985; 이동원, 1976; 이효재, 1983;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Zimmerman, Skinner, & Birner, 1980).

태도와 의식과 관련한 변수들과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역할태도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남편이 전통적이 성역할태도를 가진 반면, 부인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가 모두 전통적일 때, 부부가 모두 평등적일 때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고, 남편이 평등적, 그리고 부인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윤경자, 1997).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는 한 개인의 성역할태도보다는 어떠한 성역할 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부부가 되는가가 결혼만족도에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업여성인 경우,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으며(박은옥, 2001), 부부간의 권력형태가 평등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지배적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최규련, 1993), 직장일과 집안일에 대해 배우자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았고(최규련, 1993),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문숙재, 허경옥과 홍윤정, 1997),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과 김오남, 1996).

사회적 지지정도와 관련하여, 남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김경숙, 1988; 김경신과 김오남, 1996;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최규련, 1993),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과 김오남, 1996; 문숙재 등, 1997).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

공하기 위해 1998년 10.18-27일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사회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매년 조사내용을 달리하여 부문별로는 4년마다 1번씩 조사를 하게 된다. 1998년에는 가족, 복지, 노동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회통계조사는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만 자가보고식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대상

1998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 1999)는 전국 30,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약 7000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결과자료를 모집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고, 모집단의 대표성 제고와 시도별 독립적 추정을 위해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개도시와 9개도로 층화한 후 9개도에서는 다시 동부 및 읍면부로 나누어 총 25개 층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시도별 목표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사가능한 최적 표본을 산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총 1231개 조사구를 표본규모로 결정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추출명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개도시와 9개도로 층화한 후 9개도에서는 다시 동부 및 읍면부로 나누어 총 25개 지역별로 작성하였으며 조사구의 정렬은 각 층별 조사구를 주택특성에 의해 분류한 다음, 같은 주택 특성내에서 조사구내 취업자의 산업구성비로 재분류하였다. 25개 층별로 정리한 표본추출명부에서 각 지역별로 설정된 표본규모수만큼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계통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조사구를 조사구내 가구를 평균 8개 가구씩 묶은 구역으로 분할하고, 무작위로 인접한 3개구역을 조사구역으로 결정하고 조사구역내의 모든 가구를 표본가구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8,800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70139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20세이상 64세이하의 성인여성가운데 혼인상태에 유배우라고 응답한 여성 211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1998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

에 맞는 변수와 대상자를 선택하여 분석자료로 삼았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및 교육정도, 취업여부가 포함되었고,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주택소유여부를 선택하였고, 취학전 자녀수, 부모부양여부 등도 포함시켰다. 취학전 자녀나 부모부양은 상대적으로 가사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포함되었고,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사일분담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사회통계조사에서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에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포함하여 양가 부모와의 관계,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형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문헌고찰에서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결혼생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인척관계뿐 아니라 경제나 주택 등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함시킨 결혼만족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각 항목마다 1. 매우만족 — 5.매우불만으로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6.해당없음이 있었다.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1.매우불만—5.매우 만족으로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차별 인식정도도 성차별이 1. 전혀 없다 — 5.많이있다고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SAS 6.01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또는 ANOVA 검정을 하였고, ANOVA 검정시 집단간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Duncan-test를 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를 보면 30-39세 연령이 34.7%, 40-49세 연령이 27.5%였고, 50-64세는 23.6%, 20-29세는 14.3%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자가 43.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자가 23.1%, 중졸 19.7%, 초대졸 이상이 14.2%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51.1%였고, 비취업자는 48.9%였으며, 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는 74.1%이고, 부모가 안계신 경우

는 25.9%였다. 전체 대상자 중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대상자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취학전 자녀는 없는 경우가 70.8%로 대다수이고, 1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6%, 2명 이상은 10.6%였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68.9%,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31.1%였으며, 가사일에 대해서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상자가 44.7%, 부인이 주로하고 남편이 일부 도와준다는 대상자가 47.2%이며, 남편과 공평하게 하거나 남편이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13%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분포

| 인구학적 특성 | 구 분              | 빈도    | %     |
|---------|------------------|-------|-------|
| 연령      | 20-29세           | 3019  | 14.3  |
|         | 30-39세           | 7340  | 34.7  |
|         | 40-49세           | 5811  | 27.5  |
|         | 50-64세           | 4991  | 23.6  |
|         | 소계               | 21162 | 100.0 |
| 교육수준    | 초졸이하             | 4886  | 23.1  |
|         | 중졸               | 4178  | 19.7  |
|         | 고졸               | 9092  | 43.0  |
|         | 초대졸 이상           | 3005  | 14.2  |
|         | 소계               | 21161 | 100.0 |
| 취업여부    | 비취업              | 10354 | 48.9  |
|         | 취업               | 10807 | 51.1  |
|         | 소계               | 21161 | 100.0 |
| 부모부양여부  | 부모모심             | 205   | 1.0   |
|         | 부모안모심            | 14833 | 73.1  |
|         | 부모 안계심           | 5245  | 25.9  |
|         | 소계               | 20283 | 100.0 |
| 취학전 자녀수 | 없음               | 14987 | 70.8  |
|         | 1명               | 3926  | 18.6  |
|         | 2명이상             | 2246  | 10.6  |
|         | 소계               | 21159 | 100.0 |
| 주택소유여부  | 소유함              | 14576 | 68.9  |
|         | 없음               | 6585  | 31.1  |
|         | 소계               | 21161 |       |
| 가사분담    | 부인이 전적 책임        | 8881  | 44.7  |
|         | 부인이 주로, 남편 일부 참여 | 9384  | 47.2  |
|         | 공평하게 분담/남편주로     | 1616  | 8.1   |
|         | 소계               | 19881 | 100.0 |

### 2. 결혼만족도와 성차별인식 정도

결혼만족도와 성차별인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었다. 7항목에 대한 만족정도를 문항에 대해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자녀와의 관계

로 3.99점이었고, 자기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각각 3.68, 3.6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반적인 가정생활,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순이었고, 경제적인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2.77로 가장 낮았다.

성차별 인식에 대해서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성차별이 약간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그저그렇다'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결혼만족도 총점의 평균은 22.24, 문항평균은 3.18이었고, 성차별인식의 총점의 평균은 14.11점, 문항평균은 3.53이었다. 즉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고, 성차별인식은 약간있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결혼만족도와 성차별인식 정도

| 구분           | Range | Mean  | S.D  |
|--------------|-------|-------|------|
| <b>결혼만족도</b> |       |       |      |
| 전반적인 가정생활    | 1-5   | 3.44  | 0.92 |
| 자기부모와의 관계    | 1-5   | 3.68  | 0.89 |
|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 1-5   | 3.41  | 0.95 |
| 자녀와의 관계      | 1-5   | 3.99  | 0.90 |
| 배우자와의 관계     | 1-5   | 3.67  | 1.02 |
| 형제, 자매와의 관계  | 1-5   | 3.56  | 0.87 |
| 경제적인 생활형편    | 1-5   | 2.77  | 0.93 |
| 결혼만족도 총점     | 3-35  | 22.24 | 5.42 |
| <b>성차별인식</b> |       |       |      |
| 가정생활         | 1-5   | 3.03  | 1.17 |
| 학교생활         | 1-5   | 3.04  | 0.96 |
| 직장생활         | 1-5   | 3.98  | 0.90 |
| 사회생활         | 1-5   | 4.06  | 0.88 |
| 성차별인식 총점     | 4-20  | 14.11 | 2.93 |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비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연령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20-29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50-64세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졸, 중졸, 초졸이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졌고, 각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비취업자의 결혼만족도가 취업자에 비해 약간 높았고, 부모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부모가 살아계시면서 안모시는 대상자의 결혼만

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이며, 부모가 안계신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취학전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장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상자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일부 가사일을 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비교

| 인구학적 특성 | 구 분              | Mean  | Duncan grouping* | t or F     |
|---------|------------------|-------|------------------|------------|
| 연령      | 20-29세           | 24.69 | A                | 1434.09*** |
|         | 30-39세           | 24.01 | B                |            |
|         | 40-49세           | 21.77 | C                |            |
|         | 50-64세           | 18.69 | D                |            |
| 교육수준    | 초졸이하             | 19.15 | D                | 1155.34*** |
|         | 중졸               | 21.24 | C                |            |
|         | 고졸               | 23.41 | B                |            |
|         | 초대졸 이상           | 25.08 | A                |            |
| 취업여부    | 비취업              | 22.66 |                  | 11.26***   |
|         | 취업               | 21.82 |                  |            |
| 부모부양 여부 | 부모모심             | 23.04 | B                | 3772.74*** |
|         | 부모안모심            | 23.96 | A                |            |
|         | 부모 안계심           | 17.52 | C                |            |
| 취학전 자녀수 | 없음               | 21.21 | C                | 1009.99*** |
|         | 1명               | 24.63 | B                |            |
| 주택소유 여부 | 2명이상             | 24.90 | A                | -4.88***   |
|         | 소유함              | 22.11 |                  |            |
| 가사분담    | 없음               | 22.50 |                  | 107.23***  |
|         | 부인이 전적 책임        | 21.74 | C                |            |
|         | 부인이 주로, 남편 일부 참여 | 22.89 | A                |            |
|         | 공평하게 분담 / 남편주로   | 22.00 | B                |            |

\* Duncan grouping : 동일문자가 아닌 경우 집단간 평균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함.

### 4.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형은 독립변수들의 주효과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모형은 독립변수들의 주효과와 일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

〈표 4〉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1 모형   |          |            | 2 모형   |          |           |
|------------|--------|----------|------------|--------|----------|-----------|
|            | b      | $\beta$  | t          | b      | $\beta$  | t         |
| 연령         | -0.077 | -0.151   | -16.94***  | -0.027 | -0.052   | -3.264*** |
| 교육수준       | 0.612  | 0.141    | 19.555***  | 1.047  | 0.241    | 8.972***  |
| 취업여부       | -      | -        | -          | -      | -        | -         |
| 주택소유여부     | 1.262  | 0.108    | 17.213***  | 1.280  | 0.109    | 17.435*** |
| 부모생존여부     | -4.657 | -0.374   | -54.576*** | -4.687 | -0.376   | 17.435*** |
| 취학전 자녀수    | 0.670  | 0.084    | 12.088***  | 0.616  | 0.077    | 10.912*** |
| 가사일분담      | 0.374  | 0.044    | 7.418***   | 0.372  | 0.043    | 7.368***  |
| 성차별인식      | -0.087 | 0.011    | -7.885***  |        |          |           |
| 연령*주택소유여부  |        |          |            |        |          |           |
| 연령*가사일분담   |        |          |            |        |          |           |
| 연령*성차별인식   |        |          |            | -0.002 | -0.066   | -7.732*** |
| 연령*교육수준    |        |          |            | -0.010 | -0.087   | -3.897*** |
| 교육수준*가사일분담 |        |          |            |        |          |           |
| 교육수준*성차별인식 |        |          |            |        |          |           |
| F          |        | 1365.813 |            |        | 1197.012 |           |
| d.f        |        | 19880    |            |        | 19880    |           |
| R-sq       |        | 0.3248   |            |        | 0.3252   |           |

\*\*\*p&lt;.0001

주택소유여부 0=없음, 1=있음

부모생존여부 0=안계심 1=살아계심

에서 연령이 작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취학전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에 대해 남편의 참여가 클수록, 성차별이 없다고 인식할수록 결혼만족도는 유의하였다. 취업여부는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 생존여부였고, 연령과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순이었다.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에서 성차별 인식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효과는 첫 번째 모형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성차별 인식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연령과 성차별인식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성차별인식과 교육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로 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도 첫 번째 모형과 약간 다른 순서를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 생존여부였고, 다음은 교육수준이

며, 주택소유여부, 취학전 자녀수, 연령, 가사일 분담의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연령과 성차별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와 유의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효과는 작았다.

첫 번째 회귀모형은 7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결혼만족도의 32.48%가 설명되었으며, 두 번째 모형은 32.5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가지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보면 전체적인 문항평균은 3.18로 그저그렇다와 약간만족한다 사이에 속해 있는데, 경제적인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2.77로 약간 불만족과 그저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자료인 사회통계조사가 IMF 지원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등 국가의 외환위기가 각 가정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며(김경숙, 1988;

김명자, 1977). 본 연구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비교에서 비취업자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취업여부가 가사일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이미숙, 1993), 가사일 분담이 취업여부에 비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주효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취학전 자녀수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상자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1명인 경우가 두 번째로 높으며, 하나도 없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Thomas, Albrecht, & White, 1984; Skinner, 1980; 정혜정, 198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녀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각 문항 중 자녀관계가 가장 높고, 부모역할의 질이 기존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박은옥, 1999) 부모 역할의 의미가 큰데 반해, 학부모가 되면서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커지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존재가 여성에게 주는 의미나 부담감으로 인해 기존 외국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소유여부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t-test결과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고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회귀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주택소유여부는 연령과도 관련이 깊고, 교육수준과도 관계가 높다. 본 연구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독립변수간 상호작용 효과의 변수를 고려한 단순회귀모형에서 연령과 주택소유여부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이 상호작용 효과변수는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상호작용효과보다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연령과 교육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가 경제

적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의 질이 높다(박은옥, 2001)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부양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부모가 살아계신 경우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안모시는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그 차이가 유의한데, 부모를 모시는 경우 시부모와의 갈등이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가사일에 대한 부담도 더 크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단지 1%에 지나지 않아 변화된 가족형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단간 결혼만족도 비교에서는 부모가 안계신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회귀분석에서는 부모가 안계신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대상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한다면 부모가 안계시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분담의 경우 부인이 주로하고 남편이 일부 참여하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남편이 더 많이 가사일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며,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일을 책임지는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가사일에 대한 분담만을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남편이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는 부인만 취업한 상태이거나 맞벌이일 가능성이 높다. 부인만 취업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경제적인 가정형편 등에서의 불만족이 높아 결혼만족도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일과 가정일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우자와 비교하여 일의 분담이 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가 있었다(김경신과 김오남, 1996; 문숙재, 허경옥, & 홍윤정, 1997; 최규련, 1993). 이러한 결과는 가사일에 남편의 참여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사일에 대한 참여보다는 직장일과 가사일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노동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사일의 참여는 남편의 지지와도 연관되는데, 남편의 지지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는 다수 있다(김경숙, 1988; 김경신, & 김오남, 1996; 정혜정, 1986; 최규련, 1993).

## V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8년 10.18-27일에 실시된 사회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20세이상 64세이하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이차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주택소유여부, 취학전 자녀수, 부모부양여부 등과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사일분담정도가 포함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포함하여 양가 부모와의 관계,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형편 등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각 항목에 대해 1. 매우만족 --- 5.는 매우불만으로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고, 분석을 위해 역산하였다. SAS 6.01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t-test와 ANOVA 검정을 하였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기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각각 3.68, 3.67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반적인 가정생활,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순이었고, 경제적인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2.77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취업자의 결혼만족도가 취업자에 비해 약간 높았고, 부모가 살아계시면서 안모시는 대상자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이며, 부모가 안계신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는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취학전 자녀가 없는 경우에 가장 낮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상자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일부 가사일을 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이 작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취학전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에 대해 남편의 참여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성차별 인식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연령과 성차별인식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 생존여부였고, 다음은 교육수준이며, 주택소유여부, 취학전 자녀수, 연령, 가사일분담의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연령과 성차별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효과는 작았다.

### 2. 제언

본 연구는 1998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차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자료수집의 시점이 경제적으로 침체되던 시기임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뿐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결혼만족도 개념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각 연구마다 결혼만족도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결혼만족도는 그 자체로서도 삶의 질과 연관된 지표 활용될 수 있지만, 결혼만족도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므로 간호학계에서는 부부관계에 중심을 둔 결혼만족도 개념이 적절한지 가정생활 전반에 중심을 둔 결혼만족도 개념이 더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이차분석한 것이므로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측정에 있어서도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결혼만족도는 건강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인이므로,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고은숙, 김명자 (1993).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고정자 (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구혜령 (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아연 (199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 (1988). 기혼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김오남 (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득성 (1986).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2, 55-73.

김득성 (1992).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계: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자 (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주 (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1992). 맞벌이 부부 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71-283.

김은주 (1979).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숙재, 허경옥, & 홍윤정 (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박은옥 (1999). 유배우 취업모의 사회적 역할의 질과 건강에 대한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옥 (2001). 기혼취업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1), 80-92.

박태영 (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27-50.

배민자 (1981). 취업부인과 비취업 부인의 부부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동인 (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경자 (1997). 성역할대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이동원 (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 229-265.

이미숙 (1993).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정혜정 (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 (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통계청 (1999). 1998년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Orden, S. R., & Bradburn, N. M. (1968).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May), 715-731.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Feb), 15-28.

Vandewater, E. A., Ostrove, J. M., & Stewart, A. J. (1997). Predicting women's well-being in mid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 role invol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47-1160.

Wickrama, K.A.S., O'Lorenz, F., Conger, R. D., & Elder, Jr. G. H.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Feb), 143-155.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Aug), 625-634.
- Yogev, S., & Brett, J. (1985). Percep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

- Abstract -

Key concept : Marital satisfaction, Women.

##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Park, Euno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awarenes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explore influences of demographic and other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tatistics survey data which collected in 1998 by ministry of statistics were used for secondary analysis of this study.

Marital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questionnaire which was consisted in 7 item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general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arent and parent-in-law, relationship with brothers and sisters,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economic living status. These are measured by 5-point Likert scale. Independent variables are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having their own house or not, No. of children under school age, parents living or not, percep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arital satisfaction by all independents variables, and all independent variables except employmen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People who are younger, received higher education, have their own house, have more children under schoolage and whose parent are living in the world, show higher marital satisfaction. The more husbands participate to household labor, the better marital satisfaction. In case of percep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main effect is not significant, but interaction effect with age i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education is also significant. 32.52% of the variance in marital satisfaction were accounted for by these variables.

---

\*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